

주요사업장 점검결과 의견서

- 유가면 음동교 가설공사는 교각이 없는 특수공법에 의하여 처음 시공되는 교량으로서 강우시 교량의 유실 예방에는 효과적이지만 안전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신중을 기해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으며 신공법에 의한 교량시공으로 인하여 절감된 예산 2억 2백만원을 교량하부 옹벽공사에 투입하는 부분은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의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 휴양림 우회도로 복구공사 현장사업중 교량의 폭보다 하천의 폭이 협소하여 향후 많은 강우시 또 다른 재해가 우려된다고 생각되며, 특히 휴양림 주차장 하부 우회도로는 급경사와 굴곡이 심하므로 가드레일 등 안전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개통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의 각별한 대책마련이 요구됩니다.
- 화원 명곡~반송간 도로의 경우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해 놓고 일부 명곡리 연결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개통되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는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개설 완료된 부분에 대하여도 양 측구에 배수로가 없어 도로의 수명을 단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커브길이면서도 경사가 심한데도 가드레일이 부족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우려되고

명곡리 연결도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미보상된 4필지중 3필지는 동의서를 징구하고 1필지는 동의서를 징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서의 강력한 의지 부족이라 사료되어 조금더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망됩니다.

□ 논공 노이리와 달성공단간 도로에 대하여는

노이리에 몇 년전 임도로 4.0km를 개설하여 일부구간은 시멘트포장을 한 후 금년들어 도로 관련 부서에서 나머지 1.9km를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지, 앞으로 사업비는 얼마가 더 소요되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고 교통량 분산등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안전성확보에 최선을 다해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양정 복원공사의 경우 2002년 1회추경과 2003년 당초예산, 금년 당초예산 등 세차례에 걸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금년 5월 도시계획시설(응암 1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고시 신청하고 2004년 6월 29일자로 대구광역시의 인가가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2002년 당초부터 사업규모나 소요사업비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계획없이 예산을 요구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지금까지 계상된 사업비 4억원은 행정적인 절차가 끝난후 예산이 계상되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앞으로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에는 100%완벽한 계획과 소요예산 판단은 어렵겠지만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면밀한 사전검토후 예산에 반영토록하고

사업비 4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 고증의 자료는 문중이나, 유림회 등으로 부터 제공될 수 있으나 문화재적인 복원에는 건축관련 전문지식이 없어 완벽한 시공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어지므로 면밀한 설계검토와 공사감독, 문화재적 보존가치 등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현풍 자모배수장 증설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착수하여 지금까지
가시적인 공사는 없고 기존 배수장옆 부지를 확보해야 하지만 보상과
관련하여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배수장 주변은 유수통로에 지장물로 인한 물의 흐름에 문제가 없어야
하겠지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강우시 배수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유수통로의 지장물 제거가 필요하며

증설되는 배수장 설계에 의하면 기계실과 제방사이에 별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낙동강의 수압에 의하여 배수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시설로 물이 넘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요구
됩니다.

우리군은 매년 하절기에 많은 강우로 인하여 낙동강주변의 가옥, 농지
등의 침수로 인해 군민들이 허탈감을 느끼기도 하는 만큼 타 배수장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자모배수장 공사는 완벽한 시공으로 안전하고
견실한 배수장이 되도록 공사감독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
니다.

- 가창 삼산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는 하천주변의 농지유실을 예방
하고 자연친화적인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하부에 있는 대구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신천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도 군민들에게 다시는 수해없는 안전지대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서도 설계에 의거 최선을 다하겠지만 견실하고 영구적인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